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과 연구협력

전북대, 액체 금속 배터리 연구 협력 기반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첨단과학 분야 기술 개발 · 혁신적인 연구 프로젝트 공동 수행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최근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과 과학기술 분야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대 연구진(공대 기계공학과 강창우, 이승로, 기계시스템공학부 이동휘 교수)과 프랑스 대학 연구진들(INSA Rouen Normandy, Paris-Saclay University, University of Rouen Normandy, University of Le Havre Normandy)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의 양자연구교류지원사업(연구과제명: 액체 금속 배터리의 열-자기-유체역학 모델링)과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International Research Project(IRP)의 일환이다. 이는 전북대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 간 연구 교류를 촉진하고 글로벌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양 기관은 향후 공동 연구과제 발굴과 연구인력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첨단과학 분야에서 기술 개발과 혁신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연구책임자인 강창우 교수는 “세계

적 권위를 가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액체 금속 배터리에서의 유체역학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 그룹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오봉 총장은 “세계적 권위를 가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전북대의 글로벌 연구 역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이번 MOU 체결이 양 기관 연구진의 학술적 성과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청렴문화 확산

특별 청렴 특강 실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17일 오후 3시 삼성문화회관 영산홀에서 대학 내 청렴 문화 확산과 구성원들의 청렴 가치관 확립을 위해 청렴연수원과 연계한 특별 청렴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는 전북대 전 교직원과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세진 청렴연수원장이 나서 ‘인문학으로 비춰보는 청렴이야기’를 주제로 청렴의 의미와 실천 방법에 대해 강연했다. 이번 강의는 청렴연수원이 강의료 및 공연료를 전액 지원했다. 이에 김 원장은 고대 이스라엘과 로마제국, 현재 아르헨티나 등의 사례를 통해 부정부패와 탐욕이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쇠퇴시켰는지를 설명하며, 청렴이 개인과 공동체의 존속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역설했다. 또한 톨스토이의 저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와 개신교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불교의 ‘자타불이(自他不二)’ 개념을 인용하며 좋은 인연을 만들고, 부정한 이익을 멀리하는 삶의 자세가 청렴함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구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청렴한 삶”이라며 “청렴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강 이후에는 충청남도태권도시범공연단이 ‘부패타파! 청렴태권도!’라는 주제로 청렴 메시지를 담은 태권도 공연을 선보였다. 참석자들은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공연을 통해 부정부패를 타파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메시지에 직관적으로 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최근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과 과학기술 분야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북교육청, 2025 학교안전주간 공모전 개최

표어 · 짧은 글 등...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학교안전주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안전의식 제고와 실천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이 일상 속 안전에 대해 직접 고민하고 표현해 보는 참여형 캠페인의 일환이다.

공모 분야는 △표어 또는 짧은 글(20자 이내) △사진 또는 동영상(소풍·수컷이)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교직원은 오는 30일까지 전북교육청 누리집(학교안전과-업무마당-안전주간공모전)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면 심사, 전문가 평가, 직원

선호도 조사 등 3단계를 거쳐 5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작은 5월 28일 발표된다. 경량단 학교안전과장은 “작은 표어 한 줄, 짧은 영상 하나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의식이 강화되고, 일상에서의 실천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금연 실천, 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북교육청, 원스톱 학생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원스톱 학생 금연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흡연예방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흡연 학생에 대한 교육·상담·전문기관 연계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상담 지원 체계다. 이는 카카오톡 채널(https://gptonline.ai/ko/)에 등록한 뒤 상담 및 문의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금연 시작부터 실천, 유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상담 지원으로, 도내 흡연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기본과정, 심화과정, 상담과정, 사후관리 과정 총 4단계로 이뤄졌다. 기본과정은 금연 동기 및 실천 습관(총 10회기), 심화과정은 금연 행동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집중 활동

(총 8회기), 심화과정은 1:1 맞춤형 상담 중심의 탄력적 운영(총 5회기), 사후관리 과정은 금연 유지와 재흡연 예방을 위한 지원(총 3회기)으로 구성됐다. 운영 방식은 소그룹(3~6명) 또는 개인별 상담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주 1회 방문 시 2회기를 연속 운영할 수 있어 학교 일정에 따라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다. 상담 종료 후에는 사후관리 과정을 통해 금연 실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5월 23일까지 네이버 폼 또는 이메일(nosmoking2025@naver.com)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수업 · 평가 역량 함양으로 학력신장 결실 맺는다

전북교육연수원, 개념기반 탐구수업 실행연수 등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초·중등 교원 135명을 대상으로 개념기반 탐구수업 실행연수 및 성취평가제에 발맞춘 서·논술형 문항 개발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5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개념기반 탐구수업을 통한 수업 혁신으로 교사의 수업 전문성 함양하고, 평가 문항 개발 연수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원화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깊이 있

는 학습 실현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개념기반 탐구수업 실행연수는 총 15시간으로 핵심 개념 이해, 과목별 단원 설계 실습 및 전문가 피드백을 포함해 총 4개의 과정으로 이뤄지며, 이를 통해 교사들이 실제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활용하여 수업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성취평가제에 발맞춘 서·논술형 문항 개발 역량 강화 직무연수는 총 9시간으로, 성취 평가제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교과별 평가 문항 및 채점 기준을 직접 개발하는 실습 위주의 연수로 구성돼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평가 역량을 함양시킨다. 민완성 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수업 및 평가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력신장과 미래 역량 강화의 결실이 학교 현장에서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새만금 트라이앵글 구축

K-방산 전진기지 조성

전북대,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시험 교육과정
방위산업융합전공 운영으로 국방사업 전문인력 양성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시험 교육과정 민간 운영대학에 선정됐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이 주관하는 ‘국방사업관리사’는 국방 분야에서 전문적인 사업관리 능력을 검증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이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증으로, 이번 선정을 통해 전북대는 국방산업 전문인력 양성의 핵심 기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됐다.

지난 18일 전북대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대학30 1기 사업에 선정된 이후 새만금과 전주·완주, 익산·정읍 지역을 연결하는 ‘대학·산업 도시 트라이앵글(JUIC Triangle)’을 조성,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2차전지와 K-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산학협력 및 인재 양성을 추진해왔다. 특히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LG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방위산업융합전공’ 학부과정을 설립하는 등 방위산업 관련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에 매진했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대는 K-방위



전북대학교 전경

산업을 선도할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적인 인재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교육과정은 방산분야 전문지식은 물론,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강화해 국방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가 배출을 목표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강은호 교수(전 방위사업청장)는 “K-방위산업의 핵심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전북대가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과정까지 운영하게 돼 방위산업 인력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국가 방위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정규직원 신규 채용한다

일반행정 등 4개 분야... 내달 7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대학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변화와 발전을 주도할 정규직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채용은 전주대학교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행정, 일반행정(어학), 전산(개발), 안전관리 분야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 기본 요건을 갖춘 지원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형 절차는 △서류 전형 △실기 전형(인성 및 적성검사와 논술) △1차

면접전형 △2차 면접 전형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 안내 예정이다. 지원서는 5월 7일까지 전주대학교 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j.ac.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진원 총무처장은 “전주대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고, 대학과 함께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대학을 만들어 갈 열정 있는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대학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2학기 전임교원 12명 신규 채용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025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IT금융학과, 보건관리학과, 운동처방학과, 건축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컴퓨터공학과, 과학교육과, 반려동물산업학과 등 총 12개 학과에서 각 학과마

다 1명씩 총 12명의 전임교원을 채용한다. 오는 5월 1일까지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내 채용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 및 1차 연구업적 평가와 2차 발표 평가, 3차 면접 평가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임용예정일은 2025년 9월 1일이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청년 전공연계 · 봉사동아리 지원사업’ 선정

총 5개 학과 동아리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2025년 청년 전공연계 및 봉사동아리 지원사업’에 총 5개 학과 동아리가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청년 대상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청년층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청년층의 특성과 전공을 반영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 자원봉사 리더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선정된 동아리에는 각 15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이 제공된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우석대

학과 동아리는 △약학과 단(대표 백현아·정읍시 약품봉사 및 농촌보건활동·41명) △재활상담학과 Win-Win 직업평가 마스터 팀(대표 고윤일·익산시 진안군 완주군 거주 장애학생 직무체험 및 직업평가 직업상담·20명) △응급구조학과 학과봉사동아리(대표 최예나·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28명) △유아특수교육과 체움늘(대표 박하늘·장애유아 및 학부보를 위한 인형극 공연·10명) △유아특수교육과 유레카(대표 박소윤·장애유아를 위한 교구제작 및 체험·19명) 등이다. 이들 동아리는 오는 11월까지 각자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